

사 랑 사 랑

회원통신 제58호(99/10/20)

인 권 운 동 사 랑 방 「SARANGBANG」 Group for Human Rights, Korea
 (110-522) 서울 종로구 명륜2가 8-29 4층

대표전화: 741-5363, 팩스: 741-5364 통신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인권사랑(나우누리)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인터넷 웹사이트; http://www.sarangbang.or.kr



*11월부터 사랑방 홈페이지가 다양한 메뉴와 세련된 디자인으로 새로 단장합니다.

새 홈페이지: www.sarangbang.or.kr 대표 이메일: humanrights@sarangbang.or.kr

사 / 업 / 보 / 고

(99년 9월 넷째 주부터 10월 셋째 주까지)

4회 인권영화제 한달 연기

11월 26일부터 7일간, 동국대에서

인권영화제가 11월말로 한달간 연기됐습니다. 이번 4회 인권영화제를 10월 26일부터 동국대에서 7일간 가질 예정이었으나, 장소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 한달간 연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인권영화제는 11월 26일(금)부터 12월 2일(목)까지 1주일간 동국대 학술문화회관 예술극장 등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번 영화제의 특징으로는 국내의 인권영화의 발전을 위한 '올해의 인권영화상' 부문과 아마추어 작가들의 작품들을 선보일 '카메라 인권지기' 부문이 신설되는 것입니다. 올해의 인권영화상은 올해 제작된 국내 인권영화들 중 우수작을 골라 상금을 전달하게 됩니다. 카메라 인권지기는 일반 시민은 물론 시민사회단체, 노조, 대학동아리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직접 인권유린 현장을 촬영한 작품을 11월 1일까지 내면 됩니다.

인권교육실이 준비하는 부대행사로는 '20세기 인권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가제)'란 제목으로 20세기에 일어난 대표적인 인권사건을 슬라이드로 보여주게 됩니다. 또, 11월 30일 미국 시애틀에서 열릴 WTO 뉴라운드 협상과 관련하여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투자협정, 밀레니엄 라운드 반

대 민중행동'과 함께 특별 섹션을 만들게 됩니다. 이 섹션에서는 관련 영화 3편을 상영하고, 토론회나 강연회를 배치합니다.

이번 영화제에 상영할 작품들로 외국영화는 30편 이내 국내영화는 10편 이내에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영화제에서도 자발적인 후원회원들의 후원으로 재원을 마련하게 되는데 일반 후원회원은 1만원씩의 후원금을 내면 되고, 특별후원회원은 10만원 이상을 내면 해설책자와 기념품을 받게 됩니다. 특별후원회원에게는 이외에도 <쇼아>, <칠레전투>, <4회 상영작 세트> 중 택일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영화제 준비를 위해 작품선정, 번역, 자막, 홍보가 진행중이며, 10월말부터는 본격적인 홍보와 후원회원 조직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를 위해 영화제 스태프구성을 사랑방 상임활동가와 자원봉사자들로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전체총괄(김정아), 후원회원·조직·자원봉사 조직 및 관리(이주영·고근예), 언론, 통신 등 홍보(남수영, 이승목), 부대행사(교육실), 카메라 인권지기(김일숙), 기술총괄(엄인성), 미술총괄(이용신) 등으로 진용을 구축했습니다.

한편, 지방 영화제는 사랑방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 상영할 작품을 선택, 비디오를 구입해 자체적으로 진행하게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영화제에 대한 부담을 현저히 줄어줄게 됩니다.

국민연대, 세계 NGO 대회서 홍보

123개 단체가 결합한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국민연대)'가 지난달 결성된 이래 사랑방은 서대표가 공동집행위원장으로 결합

하고 있으며, 김정희씨가 상근자로, 자원활동가인 현정덕, 한상진(반상근)씨가 실무자로 결합하고 있습니다.

국민연대는 먼저 지난달부터 전국 220명의 헌법, 형법 교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응답자가 40명밖에 안돼서 이를 발표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활보> 창간호를 발행한 뒤 박시백씨 만화로 특별호를 제작했으며, 국문과 영문 홍보물을 만들어 세계 NGO대회 기간 중에 올림픽 공원에 부스를 설치해 배포하였습니다. 또, 지하철노조의 협조를 얻어 지하철에서도 홍보물을 배포하게 됩니다.

현재 국민연대는 <국가보안법 7조 자료집>과 대중용 선전책자를 준비하고 있으며, 주요 언론의 논설위원과 편집장들을 대상으로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한 간담회를 준비중입니다. 정기국회에서 논의되는 일정에 따라 정치권 로비도 집중적으로 펼칠 예정입니다.

한편, 사랑방은 24일(일) 오후 2시부터 탑골공원 앞에서 국가보안법 반대캠페인을 자체적으로 진행합니다. 외대생들이 노래공연과 울동을, 성대생과 일부 고등학생들이 결합하여 선전작업을 합니다.

하지만, 국민연대는 많은 단체들이 결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방 외에는 적극적인 관심과 열의를 보이는 단체들이 적어 매우 어려운 가운데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소자 인권지침서 내년 4월 발간

자유권위원회의 '감옥을 생각하는 모임(감옥모임)'에서는 내년 4월까지 <재소자 인권지침(가제)>을 발간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감옥모임은 재소자들이 자신들의 법적 권리와 처우에 대해 정보를 습득할 통로가 막혀 있음으로 인해 인권침해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판단 아래 주로 재소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재소자 인권에 대해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힐 수 있는 지침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감옥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교도소내 인권침해를 유형화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 대응방법과 법적 근거들을 제시할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 감옥모임은 과제별로 담당자를 선정하고 집필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모임은 지침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을 계획입니다.

1. 미결 수용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지침
2. 기결 수용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지침
분류심사/교도소 하루일과/거실 내 생활-혼거, 독거 생활/작업(급여)/규율, 계호, 징벌/접견, 서신, 영치, 구매/거실외 생활-종교, 식사, 의료/타 재소자와의 관계/청원-권리구제의 수단/여성/귀휴, 가석방, 석방

3. 가족이 알아야 할 사항

4. 부록: 전국 교도소 찾아가는 법/교도소 시설, 운영 및 업무체계/행형법, 시행령 등

감옥모임에는 현재 이상희 변호사, 최정학(박사과정), 현정덕, 정현선(이상 사노맹 출소자), 정봉영(갱생보호공단), 이랑(서울대생), 김혜성(자원활동가)씨와 고근에 상임활동가가 결합되어 있으며, 건국대 이승호 교수와 의사 김지영씨도 결합할 예정입니다.

□ 사회권위원회에서 10월 중순 발간키로 한 <IMF 보고서; 인간답게 살 권리>가 원고 수정 작업이 늦어져 오는 11월초에나 나오게 됩니다. 보고서는 총 600페이지 가량

의 분량에 왜 우리는 사회권을 이야기하는가/사회권의 개념과 국제사회적 논의/신자유주의와 인권/인권의 관점으로 본 빈곤/사회보장의 권리/건강권/교육권/주거권/여성의 사회권/이주노동자의 권리/장애인인권/노숙자 인권/문화권/과학기술과 인권/환경권의 시론적 검토/결론을 대신하여 등의 주제를 담은 논문들이 수록되게 됩니다.

사회권위원회는 월레포럼을 진행하기로 한 계획에 따라 11월 하순에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민간단체 보고서 작성을 주제로 1차 포럼을, 12월 중순에는 '사회보장의 권리'를 주제로 2차 포럼을 열게 되며, 3차로 '실업'을 주제로 포럼을 열 계획입니다. 이런 포럼을 통해서 사회권 운동의 전략과 실천지침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이를 현실화할 예정입니다.

□ '투자협정, WTO 뉴라운드 반대 민주행동'은 유전자 조작 안된 음식 먹기 장터에서 농업 관련 수입 개입 개방 반대 캠페인(10/30 2시, 종묘공원), WTO 뉴라운드 대응 전략 워크숍(11/4 2시-6시, 녹색연합 회의실), 민중대회장에서 캠페인(11/14), 국제노동미디어 행사 기간 중 워크숍(11/15-17), WTO 뉴라운드 반대 문화제(11/27)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뉴라운드가 열리는 11월 30일에도 반대 캠페인을 갖고 오후에는 인권영화제측과 공동으로 행사를 갖게 됩니다.

□ 사회권위원회가 인권분과 간사단체를 맡아 참가하고 있는 'ASEM 2000 한국민간단체 포럼 준비위원회'는 오는 26일 오후 1시 종로성당에서 정식 창립하게 됩니다. 인권분과는 매달 회의를 갖고 의제개발을 위해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 자유권위원회는 피의자를 폭행한 안희권 검사와 수사관들을 지난 10월 2일 서울 지검에 고발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문제에 있어 김대중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 제정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국민회의에서는 논의를 진전시키지 않고 있어 휴지기에 접어든 느낌입니다.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각 계원로와 단체 대표들을 만나 대화를 갖는 제안이 온 것 외에는 특별한 움직임이 없는 상황입니다.

□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는 지난 10월 8일 에바다 복지회 대표이사인 이성재 의원에게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의견서에서는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계획을 공개할 것,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운영 시스템을 만들 것, 구재단측의 인사들을 완전히 축출할 것, 권오일 교사 등을 조속히 복직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대회의는 이성재 의원과 공동대표 만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대회의는 현재 이성재 의원측이 구재단측의 인사들을 감싸고 돌면서 정상화와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대회의는 11월 1일 회의를 갖고 이성재 의원측의 태도가 변하지 않으면 11월 다시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 10월 6일 결성식을 가진 'SOFA 개정 국민행동'은 12일 미국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갖고 항의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중수 신부 등 16명이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이창조 총무도 이 집회에 참가했다가 연행되었다가 풀려났습니다. 국민행동은 11월 4일 '불평등한 SOFA 전면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갖는 등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인권정보자료실은 국문, 영문, 일문 자료를 구분하여 새로 정비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불필요한 자료를 속아낼 예정이며, 키워드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국감 자료를 수집, 예년과 마찬가지로 국감자료 중 인권자료들을 선별하여 자료집으로 묶어낼 예정입니다.

□ 인권교육실의 배경내씨가 지난 8일 태국으로 연수를 떠났습니다. 배경내씨는 '포럼아시아'가 주최하는 인권의 역사, 이론, 인권교육 등에 대한 연수에 참가하고 태국 인권단체들을 방문하며, 밀림에 있는 버-마 난민촌도 방문하게 됩니다. 배씨는 오는 11월 4일경 귀국하게 됩니다.

한편, 최은아씨는 10월부터 3개월간의 휴직에 들어갔고, 국제인권봉사회(International Service for Human Rights)에 인턴을 신청, 내년 유엔인권위 참가하려고 합니다.

□ 동티모르 관련 연대 사업을 진행중인 사랑방, 민변 등은 23일 오후 2시 기독교 백주년기념관에서 '동티모르 비디오 상영회'를 갖습니다. 이 상영회에서는 91년 산타 크로즈 학살 사건을 다룬 <한민족의 죽음>, 우리 나라 금강석씨가 독립투표를 전후 상황을 찍은 <동티모르, 독립의 그날>을 상영하게 됩니다. 동티모르인들의 독립을 지원하는 모금도 합니다. 모금 구좌는 한빛은행 112-07-226022(예금주 이주영)입니다.

□ 세계 NGO 대회를 맞춰 외국 인사들이 방문하여 유익한 정보를 나눴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사회연구소의 투투 스위또, 마르센 씨의 방문에는 사랑방이 나서서 숙소를 마련해주고, 단체들을 연결해주었고, 16일에는 별도의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다만 인권연합의 유잔쿠 씨등 3명도 15일 사랑방을 방문하여 의견을 나눴고, 앰네스티의

덴 존스씨도 19일 방문하여 다른 단체 사람들과 초청,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한편, 민변에서 18일 마련한 국제법률가위원회(ICJ)의 아시아담당 너말라 판디씨와의 간담회에도 참석하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선택의정서 채택 등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최인화씨가 9월 27일부터 10월 8일까지 연수를 다녀갔습니다. 전북평화와 인권연대는 11월에도 한 명의 활동가를 연수 보낼 예정입니다.

□ <인권하루소식> 합본 12호가 11월초경 나오게 됩니다. 합본호가 나오는 대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 인창고 학생들이 지난 16일, 19일을 비롯 21일에도 단체를 방문했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 약 40여명이 방문하여 사랑방 단체에 대한 소개와 인권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갖습니다. 청소년들과 인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 사랑방을 알리는 새 브로셔가 최근 나왔습니다. 이 브로셔에는 사랑방의 역사, 각 실 사업들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으며, 후원방법도 들어 있습니다. 사랑방 로고가 선명하게 들어간 이 브로셔를 통해 사랑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나갈 계획입니다. 주위에 사랑방을 알리고 싶으신 분은 사무실로 연락하시면 이 브로셔를 보내드리겠습니다.

□ 미뤄져 왔던 후원회를 오는 12월 중으로 결성하려고 합니다. 후원회는 유명인사들 중심의 거창한 후원회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방을 돕고 싶은 소박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임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 되는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자문위원들께서는 지난 4월에 편지로 말씀드렸듯이 자동 후원회원이 됩니다.

인권운동사랑방 99년 10월 중순 이후 사업일정표

사업별		시기별		10월 중순	10월 하순	11월 초순	11월 중순	11월 하순	12월 초순	12월 중순	12월 하순	사업별 중점사항
1. 주요 연대 사업	국가인권위원회	배경내	당정협의		인권법 통과(1차)				인권법 통과(2차)	인권법 공포(10)		공대위 재가동, 인권위 위상 확보
	국가보안법	김정희	집중캠페인/개정법률안 국회 통과(1차)			집중캠페인(2차)		개정법안 통과(2차)	개정법 공포(10)		7조의 완전 삭제	
	밀레니엄라운드	이주영	1차 캠페인(13)	2차 캠페인(30)		3차 캠페인(13)	시애틀회의(30)				시애틀회의 전 세계민중연대 구제단 완전배제, 민주적 운영 시스템 마련	
	에바다정상화	박래군	평택집회(16)	대표면담	실무자회의(1)	실천투쟁(하순까지)	3주년(27)					
	인권영화제	김정아	후원회원모집 시작	대중홍보본격화(20)	카메라인권지기마감(1)	최종점검	개막식(26)	폐막제(2)	후속작업, 정리		관객동원, 영화제특성개발, 재정흑자책, 부대행사	
2. 내부 주요 사업	인권교육실	류은숙					인권영화제부대행사	교재두권발간(?)	방중인권강좌준비		영화제부대행사준비	
	인권정보자료실	류은숙		자료실정비	국감자료집발간						자료실정비작업계속	
	인권하루소식	유혜정		합본12호발간		2천년기획		연말특집준비		중간(28)	팀원의완비, 자생력확보	
	자유권위원회	고근애	보/관,정보공개청구					행정법, 민영법통과			재소자인권지침발간준비(내년 4월)	
	사회권위원회	박래군	보고서발간(23)				월례포럼(1차)		월례포럼(2차)		사회권운동전략마련	
3. 후원회 창립	총무	이창조	9월 결산			10월 결산				11월 결산		재정난 타개책 구체화, 실행
	총무	박래군	이창조		창립준비모임		창립총회홍보			창립		후원회 구상 구체화, 주요인사 접촉
4. 기타 일정	모두 또는 각자			아셈민간단체포럼창립(26)		민중대회(13)		세계인권선언기념일(10)	민가협시와노래밤(12)			

NGO 세계대회장에서 NGO의 표현의 자유를 짓밟은 청와대 경호대와 경찰의 몰지각한 행동을 규탄한다

1

오늘 오전 10시 20분 경 세계 NGO대회 개회식이 열리던 올림픽 공원 체조경기장 출입구 주변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던 본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민간단체(NGO) 회원 50여명이 청와대 경호원들과 경찰관들에 의해 강제로 200m 가량 밀려나고 공식행사가 끝날 때까지 약 60명의 전투경찰대에 의하여 포위·고립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민간단체 회원들은 아침 8시 30분 경부터 어떤 국가기구로부터도 독립적인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평화로운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10시 경 민간단체 회원들이 서서히 자리를 옮기고 있던 중 대통령이 개회식장에 도착하면서 갑자기 청와대 경호원 20여명은 민간단체 회원들을 힘으로 밀어내기 시작했다. 6-70명의 전투경찰들이 배치되면서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임태훈(24세) 씨 등은 경찰에 체여 타박상을 입었다. 결국 민간단체 회원들은 경찰에 둘러싸인 채 피켓시위를 중단해야만 했으면 공식행사가 끝난 뒤에야 풀려날 수가 있었다.

2

NGO대회는 전 세계 NGO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고 상호 이해·협력하기 위해 마련된 NGO들의 축제인 것이다. 그런데, 오늘 NGO 대회장에서 민간단체들의 평화로운 의사표현 행위를 폭력적으로 방해한 청와대 경호원들과 경찰관들의 몰지각한 행동에 우리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우리가 참석했던 세계적인 규모의 NGO대회는 여러 번 있었다. 그러나 평화적 피켓 시위를 오늘과 같은 과격한 폭력으로 대통령 시야 밖으로 밀어낸 NGO대회는 이번이 역사상 최초일 것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NGO대회이며 무엇을 위한 NGO대회인가?

3

우리는 '인권대통령'의 청와대가 NGO대회장에서 NGO들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유린한 이번 사태에 대하여 청와대측의 인권의식 결핍을 심히 우려함과 동시에 청와대 경호실에 엄중히 항의하는 바이다. 아울러 우리는 NGO세계대회 주최측에 대하여도 엄중한 항의를 제기하고자 한다. 이번 사태가 벌어지고 있던 1시간 반 동안 누구도 몸싸움의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 무책임함을 드러냈다. 물건대 만약에 주최측이 대통령이나 '높은 분'들의 행차가 NGO의 평화적 의견 표명 보다 중요하다는 감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번 NGO세계대회 자체의 정체성에 심각한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는 이번 사태에 대해 청와대측과 NGO세계대회 주최측의 공식적인 사과를 엄중히 요구한다.

1999년 10월 11일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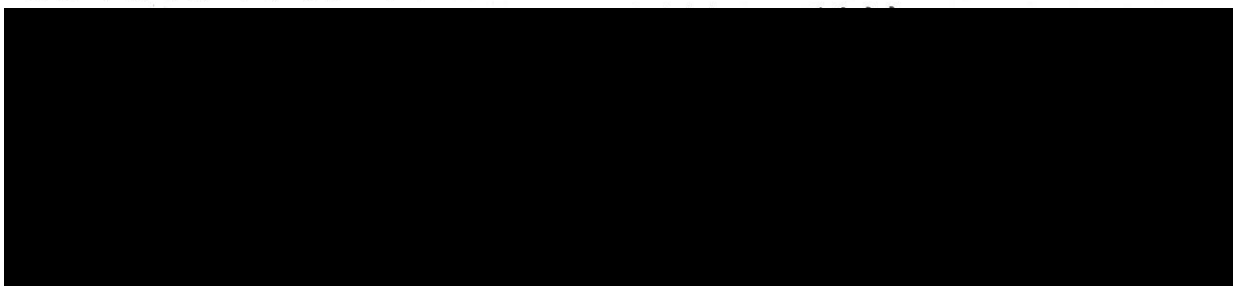
(연락처 : 인권운동사랑방 전화 741-5363 / 전송 741-5364)

99년 9월 재정 보고
(99년 9월 16일 - 10월 15일)

이월금: 447,948원

수입		지출	
총사업수익	5,185,800원	사업비	1,244,360원
-하루소식	4,120,980원	-하루소식	738,320원
구독료	3,138,700	우편발송비	589,720
인권시평 배급	261,400	해외우송료	51,600
해외독자 구독료 일시불	720,880	복사비	58,000
-정보자료실	370,320원	기타	39,000
자료판매	192,400	-자료실	168,430원
영상자료 대여	125,000	-자유권위원회	124,610원
복사비	52,920	-연대사업	130,500원
-인권교육실	514,500원	-홈페이지 작업	60,000원
강연료	404,500	-후원회원 관리	22,500원
교육비	110,000		
-사무국장 강연료	180,000원	활동비	4,670,000원
후원금	3,052,900원	사무실유지비	1,118,320원
-정기 후원회비	2,572,900	전화·팩스 사용료	1,121,060원
-일시 후원금	480,000	PC통신·인터넷 사용료	270,431원
기타	1,791,659원	사무비품 및 사무기기	500,000원
-영화제 자원봉사자 식비	240,000	사무국 식비	421,200원
-인도네시아 활동가	1,462,580	생필품 구입	224,450원
-류은숙 기여금	80,000	부채상환	99,000원
-기타	9,079	기타	74,860원
총수입:	10,030,359원	총지출:	9,743,681원
잔액 :	734,626원		
현 부채액 :	17,336,400원		

<9월 후원회원 회비>(가·나·다순)



-사무용 의자와 회의용 의자, 벽걸이용 난로 등을 기증할 분을 찾습니다.